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vol.61

2009. 02. 0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한진 GRAND P.E. 성공적 납품!!

우리 회사는 금번 1월 23일 선보유니텍 영도공장에서 한진 GRAND P.E를 성공적으로 제작, 납품했다. GRAND P.E는 기존에 우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유니트 제품들의 복합체로서 단 블록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엔진룸 블록, 의장품, 엔진룸 유니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납품을 위해 우리 회사는 지난해 10월 지반공사를 시작으로 공장동 파괴공사 등 작업에 필요한 현장 여건을 마련하고 장비를 늘리는 등 물심양면의 노력을 기하였다. 특히 추운 날씨 속에 원활하지 않은 자재 공급 등으로 잦은 야간작업과 긴 대기시간 등 작업의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극복했다.

이로서 우리 회사는 2007년 현대미포조선 엔진룸 블록 유니트를 첫 납품을 시작으로 금번 GRAND P.E를 성공적으로 제작 납품함으로써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의 종합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 계획 중인 약 6건의 제품 또한 성공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최금식 대표이사, 대한산악연맹 부산지부 회장 취임

제41차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

(사)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 (주) 크리스탈부대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은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 24층 크리스탈뷔페에서 열린 제 41차 정기총회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시장, 부산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는 "부산산악문화축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산연맹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최금식 대표이사,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

KBS

위촉장

최금식

위촉을 200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KBS 부산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9년 1월 1일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총국 국장 이 동 심

지난달 1일,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는 KBS시청자 위원으로 위촉됐다.

최금식 대표이사가 위촉된 KBS시청자 위원회는 지역 경제 회복을 선도하며 "2009년 바다가 미래다 부산이 희망이다"라는 캠페인 진행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위기 극복 방안 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남경제권 통합 공동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동일생활권 경제 통합으로 자율적 경제 발전 방안을 추진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 발전 방안 지원, 지자체간의 지역 방송간의 교차 협력을 기대해 본다.

최금식 대표이사, "이명박 대통령 설 선물" 받아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설 연휴 이명박 대통령 내외로부터 전남 장흥, 강진의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선물은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계 각층의 주요 인사 5천 5백명에게 전달된 선물로 전남 장흥의 표고버섯과 대구 달성의 가래떡이 어우러져 전라도와 경상도 특산물을 통하여 국민통합의 뜻과 의미가 깃든 명절 선물이라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회사소식

3공장

3공장, 자동용접기 개발 및 가동



지난 달 우리회사는 다대3공장 내 자동용접기를 가동했다. 지난 10월부터 자동용접기 개발 업체 인 덕성정공과 공동으로 자동용접기를 개발해왔으며, 11월 말 기계 시험



가동을 통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발한 자동용접기는 기존의 기기가 23곳을 용접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6곳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동용접기 개발 관계자는 "기존에 23곳만을 용접할 수 있었던 기기를 덕성정공과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 6곳으로 늘었기 때문에 생산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원가를 낮추면서 매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력 있는 기기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한 결과라 더욱 의미 깊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원통 용접기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용접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생산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원통형 자동용접기는 일본, 중국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회사소식

가족초청 간담회



가족초청 간담회를 통한 가족 친화에 기여!!

우리 회사는 가족친화기업의 일환으로 1월부터 3월까지 3달 동안 각 부서별로 부서원 및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여 부서원이 일하는 모습과 회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그동안 소원 했었던 가족 상호간의 친밀감 증대와 회사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가족초청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한 가족은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것이 정말 좋았다. 집사람이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 늘 집에만 있다 회사 동료 와이프들과 함께 수도도 떨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하면서 더 친해져 헤어질 때 많이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런 행사로 회사는 유형의 이득 보다는 무형의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외에 자발적으로 직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회사소식

독서 통신 교육

무사안녕 기원하는 '시산제' 지내

지난달 10일, 우리 회사는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무사안녕과 더불어 회사의 번영,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열었다. 여느 해와 같이 금정산 상계봉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본사 기술영업부, 설계부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매출목표 1500억 달성에 이어 올해도 매출 목표 2000억 달성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회사 소식

납품

SPP H4001호선 선보 순수 기술로 납품
TANK TOP UNIT



상기 호선은 SPP조선으로 부터 수주한 첫 설계 도급 호선으로, 통상 제작도까지 사급받는 호선과 달리 DIAGRAM과 M/A만 가지고 SHIP SIDE NOZZLE, DOUBLE BOTTOM, FLOOR 전구역의 배관/철의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한 첫 호선이다.

당사 설계원 중에서는 공성문 이사를 제외하고는 FLOOR UNIT 배관 설계 경험자가 전무하였으며, 또한 수주 당시 이미 도면 DP가 한달 남짓 한 상황에서 수주되어 공정 내 설계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앞섰다.

그러나 조선 설계 경험이 풍부한 공성문 이사의 지도편달 아래 팀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모든 설계 공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처음으로 T/TOP을 자체 설계를 당담(설계6팀)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진행 도중 잦은 DIAGRAM 개정과 YARD 및 선주 요구사항들로 인해 이중 작업이 수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후행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원활히 업무진행이 되어 당사 자체 설계로 이루어진 첫 T/TOP 처녀 작품인 H4001호선을 우여곡절 끝에 성공리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

회사 소식

우수한 품질

우리 회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품질우수 협력회사” 패 받아...

우리 회사는 최근 원자재 원가 상승과 환율, 유가 급등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직원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한 결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품질우수 협력사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상을 계기로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등의 여러 면에서 월등한 기량을 선보이길 기대해 본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완벽에의 충동”**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CEO에는 일주일에도 십 수 편의 동영상 이 올라온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년의 세월 동안 항상 최고의 조회수를 지키며 CEO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영상 이 있다. 바로 <정진홍의 감성리더십>이다. 이 동영상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전국의 CEO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완벽에의 충동》(정진홍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은 <정진홍의 감성리더십>에 소개되었던 200여 편의 이야기 중 87명의 이야기를 골라 꾸민 것이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열정의 군인 조지 패튼, 양팔이 없고 양다리도 짧지만 예술가로서 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아 가고 있는 앨리슨 래퍼 등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삶의 메시지를 전한다.

완벽이 아니라 '완벽에의 충동'인 이유는 '완벽' 그 자체는 빈틈없는 밀봉이며 마침표입니다. 하지만 '완벽에의 충동'은 쉼 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진행형이며 빈틈없는 밀봉이 아니라 그 틈을 뚫고 나오는 활화산 같은 역동의 에너지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완벽'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고투하는 본능으로서의 '완벽에의 충동'인 것이다.



생생현장의 소리

한서선박 | 송인국

“한마음 한 뜻으로 일구어낸 수확”

지난 한 해, 어느 팀보다도 끝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온 팀이 있다. 한 번 또 받기 힘든 상을 지난 연말 한서선박은 우수 협력업체상과 생산성 향상 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유일한 선박업체로서의 자부심으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뚝뚝 뚫힌 한서선박 송인국 팀장을 만나보았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의 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소감을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선 상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받게 되어서 기쁘다.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했던 과정이 좋은 결과로 돌아와서 뜻 깊다.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우리 팀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큰 힘이 될 것 같다. 넘칠 듯한 에너지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긴다”며 겸손하면서도 힘찬 소감을 전했다. 인터뷰를 한 송인국 팀장이 선보에 온 것은 2개월 남짓. 그에게 선보의 첫 인상에 대해서 들었다. “선보의 첫인상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겪은 선보는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 그 에너지는 일을 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선보에 입사한지 2개월 된 송인국 팀장은 이번 한진GPE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그는 “한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선보에 입사하기 이전의 회사가 한진 이라서 그런지 큰 부담감은 없다. 느낌이 미묘하기는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느낌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다. 어떤 팀보다도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던 한서선박 팀을 대표해서 송인국 팀장에게 새해 포부에 대해서 물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그 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통해 많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서 선박 또한 보다 나은 선보의 이익을 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포 관련 일은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현재 유니트 전문업체로 알려진 선보, 그는 선각을 포함한 유니트 전문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조하겠다고 덧붙인다. 블록 제작부터 유니트에 관련한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문회사가 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일조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빛날 그와 한서선박을 주목해보자.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3호 주인공 | 이주희 팀장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룩해낸다는 것은.



Q 칭찬 릴레이 33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우선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된 사실을 인터뷰 직전에 듣게 돼서 조금 당황스러움이 앞서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해주셔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에서

칭찬받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칭찬해주신 만큼 그에 걸맞게, 앞으로라도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제가 원래는 영도공장에서 선각생산관리팀에서 일했어요. 이번 FPSO 플랜트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구평 공장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선각생산관리팀에서 일할 때는 우선 선보 내에 선각 파트로 유일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선각 파트에 경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든 부분도, 체계화시켜서 정착시켜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선각 파트가 정상화되어서 체계적인 시스템 환경 아래 근무할 수 있으니 많이 뿌듯하죠. 사실 선각 파트와 비슷한 경우로 이번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투입되었어요. 아무래도 아

직 체계화 되지 않고, 낯선 부분이 많고 처음 시작 하는 분야이다 보니 이전의 선각파트를 시작했을 때의 경험이 이 일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찾고, 또 다른 플랜트 프로젝트만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무언가에 도전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일구어 내는 일이 흥미로워요. 어떤 신규아이템이 생기건 간에 주어진 환경 내에서,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Q 34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규 아이টে에 대한 도전 정신이 그 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분은 바로 영도 공장 의장생산관리팀의 표종원 팀장님인데요. 이 분 역시 의장 팀의 오픈 멤버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분들 중 하나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해나가는 의지가 강해요. 뿐만 아니라 현장과 동화되어 팀 내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관리 능력 또한 탁월해요. 선각과 의장 분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표종원 팀장님을 추천해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아야 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축하합니다!

- 본사** 정수ENG 김명운(2/17) 이종우(2/25) 김용진(2/18)
- 사업기획** 이재민(2/12)
- 구매** 예연희(2/9)
- 설계** 김경수(2/26) 오영석(2/15) 임기섭(2/20) 주원석(2/11) 조재민(2/8) 오성진(2/21)
- 3공장** 사이렌스 임종화(2/8)
- 스테레나** 최광욱(2/1)
- 1공장** 사무실 김이곤(2/9)
- 순해공업** 안종록(2/18)
- 금천산업** 황광문(2/25)
- 2공장** 배관팀 손환수(2/18)
- 신덕ENG** 김경호(7/2)
- 정수ENG** 김명운(2/17) 이종우(2/25) 김용진(2/18)
- 신일공업** 유완중(2/14) 한기태(2/28)
- 구평** 품질보증 김현우(2/1)
- 대한ENG** 이창희(2/13) 허경(2/13)
- 명성산업** 김태준(2/2) 권태식(2/16) 정용수(2/13) 송정호(2/2)
- 서경PLANT** 한동근(2/7) 성민호(2/2) 오우정(2/6) 정성국(2/21) 정재호(2/15)
- 영도** 품질보증 김영호(02/19)

틀린그림찾기

5개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